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간주임대료 환급가산금 이자율 1.8→1.2%로 인하

임대소득 환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덧붙여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돈이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전세금 등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중이자만큼 소득신고(간주임대료)를 해야 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16%까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자율의 경우 1.2%로 책정됐다.

시행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이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사전심사 더 빨라진다... 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전담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신속 정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지구별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공제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로 약 3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세금혜택이 더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홈택스 간이계산기 제공하며,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정부가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투자 시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141개 시설에서 1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추가된 대상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업종 특성상 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연구·인력개발 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포함됐다.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이 보유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휴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운용하는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선박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시설은 총 17개로 시스템 반도체, 탄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분야가 포함됐다.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다.